

## 물리치료실 자립개설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의식도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 대구보건대학 물리치료과<sup>1)</sup> · 대구병원 물리치료실<sup>2)</sup>

남철현 · 김상수<sup>1)</sup> · 배현정<sup>2)</sup>

### Physical Therapists' Consciousness Level for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Clinic

Nam, Chul-Hyun, Ph.D., Kim, Sang-Soo, P.T, Ph.D.<sup>1)</sup>, Pae, Hyun-Jung, R.P.T<sup>2)</sup>.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san University*

*Dept.of Physic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sup>1)</sup>*

*Dept.of Physical Therapy, Daegu Hospital<sup>2)</sup>*

#### - ABSTRACT -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physical therapists' consciousness for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their own physical therapy clinics, examining aspects of physical therapy rooms in medical institu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210 physical therapists working in Daegu and Kyungbuk regions from August 1, 1999 to August 31, 1999.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56.3% was 'female' : 60.4% 'twenties of age' : 56.1% 'working experience for blow 5 years'.
2. 75.3% of the respondents thinks that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their own physical therapy clinics must be enacted without fail. 50.1% thinks that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clinic will be enacted within 5 to 10 years.
3. The important solutions in driving forward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the clinic are accumulation of practice experience an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31.3%), accumulation of practice experience and raising of academic career(19.0%), and accumulation of practice experience and legal action(14.0%). 10.9% believes that independent establishment will be achieved someday if they wait for it.

---

**key Words:** Independent establishment

## I. 서론

치료학과 예방의학의 발달로 급·만성 전염병은 감소하였으나 복합요인에 의한 성인병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기계문명의 발달에 의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증가 등 치료를 요하는 심신장애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신정순, 1980), 이들의 치료를 위하여 재활의학이 발전되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문직의 하나인 물리치료사는 의료적 치료와 재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 소득 수준과 보건지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물리치료 소비자들의 질적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는 물리치료 면허행위를 제한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한하여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행의료법, 의료기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어서 물리치료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물리치료사의 질적 향상 그리고 사기 진작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의 질적 향상과 선진 복지국가는 길목에서 물리치료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의 현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자립개설에 관한 물리치료사들의 의식도를 조사하여 물리치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보완하였으며 조사는 8월 14일 대구광역시 물리치료사협회 주최로 실시된 보수교육에 참여한 회원에게 입장 시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내용을 설명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기재하게 하여 퇴장 시 회수하였고, 일부는 동기간 중 조사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여 개인 직접면담으로 조사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부실한 자료는 제외하고 전산처리 가능한 응답지 210매(250매 중 84%)를 부호화(coding)하여 SPSS package program에 의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독립성 검증을 하였으며, 통계 유의성 검증은  $\chi^2$ -test로 하였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만족도 측정을 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 1) 이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의 일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사결과를 전체 물리치료사에게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 2) 현재 물리치료실 자립개설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기본적인 물리치료사 의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접근하였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대구, 경북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재활원 등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9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이었다. 협회에 등록된 대구, 경북 지역의 취업 물리치료사 총 860여명 중 2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 2. 조사방법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전조사를 한 후 설문지를 수정·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60.4%였고, 30대 이상이 39.6%였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56.3%로 남자 43.7%보다 높았다.

최종학력별로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66.1%이고, 대학교 재학이상은 33.9%였다. 이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제 대학 편입생과 졸업생 및 대학원 졸업생 모두를 포함한 물리치료사를 말한다.

경력별로 보면 5년 미만인 56.1%였고, 의료기관별로 보면 개인의원 근무자가 37.4%, 준종합병원이 34.6%, 기타(재활원이나 특수학교 등)가 14.5%, 종합병원이 13.8%였

다 <표1>.

<표 1>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

구 분	인원수	%
	210	100.0
연령		
20대	127	60.4
30대이상	83	39.6
성별		
남	92	43.7
여	118	56.3
결혼상태		
기혼	83	39.5
미혼	127	60.5
최종학력		
전문대졸	139	66.1
대학교재학이상	71	33.9
경력(년)		
1-5미만	118	56.1
5-10미만	55	26.2
10이상	37	17.6
직위		
물리치료사	200	95.4
관리겸임자	10	4.6
의료기관		
종합병원	29	13.8
준종합병원	72	34.3
개인의원	79	37.4
기타	30	14.5
월수입(만원)		
80미만	30	14.4
80-119	100	47.8
120-159	48	22.7
160이상	32	15.1

## 2. 자립개설 제도의 법적화에 대한 견해

물리치료실 자립개설 제도의 법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률이 75.3%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84.9%, 여자가 67.9%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로 유의성이 있었다(P<0.01).

경력별로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10년 이상에서 86.0%, 5년 미만에서 74.9%, 5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69.0%였고, 직위별로는 관리겸임자가 89.6%, 물리치료사가

74.7%였다<표2>.

<표 2> 물리치료실 자립개설 제도의 법적화에 대한 견해

구 분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시기상조다	계
	75.3( 158)	24.7( 52)	100.0(210)
연령			
20대	72.4	27.6	100.0(127)
30대이상	79.7	20.3	100.0( 83)
	$\chi^2 = 1.44179$	df = 1	sig = 0.22985
성별			
남	84.9	15.1	100.0( 92)
여	67.9	32.1	100.0(118)
	$\chi^2 = 7.99524$	df = 1	p < 0.01
결혼상태			
기혼	76.7	23.3	100.0( 83)
미혼	74.4	25.6	100.0(127)
	$\chi^2 = 0.13497$	df = 1	sig = 0.71333
최종학력			
전문대졸	74.8	25.2	100.0(139)
대학교재학이상	76.3	23.7	100.0( 71)
	$\chi^2 = 0.05791$	df = 1	sig = 0.80983
경력(년)			
1-5미만	74.9	25.1	100.0(118)
5-10미만	69.0	31.0	100.0( 55)
10이상	86.0	14.0	100.0( 37)
	$\chi^2 = 3.45804$	df = 2	sig = 0.17746
직위			
물리치료사	74.7	25.3	100.0(200)
관리겸임자	89.6	10.4	100.0( 10)
	$\chi^2 = 1.09930$	df = 1	sig = 0.29442
의료기관			
종합병원	79.7	20.3	100.0( 29)
준종합병원	82.5	17.5	100.0( 72)
개인병원	67.2	32.8	100.0( 79)
기타	75.1	24.9	100.0( 30)
	$\chi^2 = 5.10490$	df = 3	sig = 0.16428
월수입(만원)			
80미만	70.3	29.7	100.0( 30)
80-119	74.3	25.7	100.0(100)
120-159	69.7	30.3	100.0( 48)
160이상	91.8	8.2	100.0( 32)
	$\chi^2 = 5.94825$	df = 3	sig = 0.11416

### 3. 자립개설을 위한 법적 가능시기에 대한 견해

자립개설의 법적 가능시기가 5 10년 이내에 가능하리라는 응답률은 50.1%였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1995년 1월 1일 이후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진출로 외국의

〈표 3〉 자립개설을 위한 법적 가능시기에 대한 견해

구 분	단위: %(N)			계
	1-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후	
연령	22.3( 47)	50.1(105)	27.5( 58)	100.0( 210)
20대	19.7	49.6	30.7	100.0( 127)
30대 이상	26.4	51.0	22.7	100.0( 83)
	$\chi^2=2.21266$	df=2	sig=0.33077	
성별				
남	26.3	47.0	26.7	100.0( 92)
여	19.2	52.6	28.2	100.0( 118)
	$\chi^2=1.52918$	df=2	sig=0.46553	
결혼상태				
기혼	27.4	49.4	23.2	100.0( 83)
미혼	19.0	50.6	30.3	100.0( 127)
	$\chi^2=2.53004$	df=2	sig=0.28223	
최종학력				
전문대졸	22.7	46.6	30.7	100.0( 139)
대학교재학이상	21.7	57.0	21.3	100.0( 71)
	$\chi^2=2.55811$	df=2	sig=0.27830	
경력(년)				
1-5미만	21.4	50.6	27.9	100.0( 118)
5-10미만	13.6	53.1	33.3	100.0( 55)
10이상	38.3	44.2	17.5	100.0( 37)
	$\chi^2=8.55011$	df=4	sig=0.07338	
직위				
물리치료사	23.4	47.8	28.8	100.0( 200)
관리겸임자-	100.0	-	-	100.0( 10)
	$\chi^2=10.00176$	df=2	p<0.05	
의료기관				
종합병원	27.2	46.6	26.2	100.0( 29)
준종합병원	26.6	43.1	30.3	100.0( 72)
개인의원	18.6	50.8	30.6	100.0( 79)
기타	17.4	68.5	14.1	100.0( 30)
	$\chi^2=7.09244$	df=6	sig=0.31238	
월수입(만원)				
80미만	23.1	43.9	33.0	100.0( 30)
80-119	14.5	57.7	27.8	100.0( 100)
120-159	22.2	44.1	33.7	100.0( 48)
160이상	46.5	41.2	12.3	100.0( 32)
	$\chi^2=17.00929$	df=6	p<0.01	

물리치료사가 자유롭게 자립개설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내의 물리치료사에게도 자립개설 시기가 가속되리라는 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직위별로는 관리 겸임자 100%, 물리치료사 47.8%가 자립개설이 5 10년 이내에 가능하리라고 응답하였고, 유의성이 있었다(P<0.05).

월수입별로 보면 5 10년 이내에 자립개설 가능하다가 80 119만원에서 57.7%, 120 159만원에서 44.1%, 80만원 미만에서 43.9%고, 1 5년 이내에 가능하다가 160만원 이상에서 46.5%로 유의성이 높았다(P<0.01) 〈표 3〉.

### 4. 자립개설 추진에 있어 중요 해결점

자립개설에 있어 중요해결점은 실무경험 축적과 신기술 도입이라는 응답률이 31.3%, 실무경험 축적과 학력제고가 19.0%, 실무경험과 법적 대응이 14.0%였고, 기다리면 언젠가 된다는 10.9%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실무경험축적과 신기술 도입이 35.4%, 30대 이상은 실무경험과 학력제고가 27.5%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실무경험축적과 법적 대응에 22.3%, 여자는 실무경험축적과 신기술 도입에 41.4%로 남자 물리치료사가 법적인 대응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는 유의성이 있었다(P<0.01).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이상보다 전문대학 졸업자가 신기술 도입에 응답률이 높았다.

경력별로 보면 실무경험축적과 신기술도입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4.6%, 5년 미만에서 31.8%였고, 실무경험 축적과 학력제고는 10년 이상에서 31.8%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직위별로는 물리치료사가 실무경험축적과 신기술 도입에 32.2%, 관리겸임자가 실무경험축적과 학력제고에 89.6%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의료기관별로는 실무경험축적과 학력제고가 종합병원 근무자에서 37.2%로 높았고, 실무경험축적과 신기술 도입은 기타가 40.3%, 개인의원이 36.2%, 준종합병원이 22.4%였다.

자립개설 추진에 있어 연령이 높고 경력이 많은 물리치료사들은 실무경험축적과 학력제고를 강조하였고, 연령이 낮은 물리치료사일수록 신기술 도입이 중요관점이었다(표 4-1,4-2).

<표 4-1> 자립개설 추진에 있어 중요해결점

단위: %(N)

구 분	실무경험축적 학력제고 19,0(40)	실무경험축적 신기술 도입 31,3(65)	실무경험축적 법적대응 14,0(30)	학력제고 신기술도입 8,8(19)	학력제고 법적대응 8,7(18)	신기술도입 법적대응 7,4(16)	기다리면 언젠가 됨 10,9(22)	계 100,0(210)
연령								
20대	13.4	35.4	11.0	9.4	10.2	7.1	13.4	100.0(127)
30대이상	27.5	25.1	18.6	7.8	6.2	7.8	7.1	100.0( 83)
		$\chi^2=12,00428$	df=6	sig=0,06187				
성별								
남	20.1	18.4	22.3	6.1	12.9	7.5	12.6	100.0( 92)
여	18.1	41.4	7.6	10.9	5.3	7.3	9.5	100.0(118)
		$\chi^2=22,11432$	df=6	p<0,01				
결혼상태								
기혼	26.4	25.7	15.5	6.7	11.1	9.0	5.5	100.0( 83)
미혼	14.1	35.0	13.1	10.1	7.1	6.3	14.4	100.0(127)
		$\chi^2=11,37346$	df=6	sig=0,07750				
최종학력								
전문대졸	16.5	36.0	14.1	9.3	6.7	7.1	10.3	100.0(139)
대학교재학이상	23.7	22.3	13.9	7.8	12.5	7.8	12.0	100.0( 71)
		$\chi^2=6,18749$	df=6	sig=0,40252				
경력(년)								
1-5미만	13.2	31.8	14.1	7.6	11.3	6.8	15.2	100.0(118)
5-10미만	22.6	34.6	8.3	12.5	1.8	11.2	8.9	100.0( 55)
10이상	31.8	24.8	22.4	7.0	10.5	3.5	-	100.0( 37)
		$\chi^2=22,98134$	df=12	p<0,05				

<표 4-2> 계속

단위: %(N)

구 분	실무경험축적 학력제고 19,0(40)	실무경험축적 신기술 도입 31,3(65)	실무경험축적 법적대응 14,0(30)	학력제고 신기술도입 8,8(19)	학력제고 법적대응 8,7(18)	신기술도입 법적대응 7,4(16)	기다리면 언젠가 됨 10,9(22)	계 100,0(210)
직위								
물리치료사	15.6	32.2	14.7	9.2	9.1	7.7	11.4	100.0(200)
관리점임자	89.6	10.4	-	-	-	-	-	100.0( 10)
		$\chi^2=32,85725$	df=6	p<0,001				
의료기관								
종합병원	37.2	30.7	3.4	3.4	11.4	6.9	6.9	100.0( 29)
준종합병원	21.1	22.4	16.6	10.5	10.1	10.5	8.7	100.0( 72)
개인의원	10.0	36.2	13.9	10.9	9.7	6.2	13.1	100.0( 79)
기타	19.7	40.3	18.4	4.3	-	3.3	14.1	100.0( 30)
		$\chi^2=23,53282$	df= 18	sig=0,17094				
월수입(만원)								
80미만	16.5	29.7	10.9	3.3	16.5	13.2	9.9	100.0( 30)
80-119	12.5	37.6	16.5	9.6	5.0	7.6	11.2	100.0(100)
120-159	22.0	29.1	-	16.5	9.0	5.4	18.0	100.0( 48)
160이상	37.1	16.4	30.2	-	12.3	4.1	-	100.0( 32)
		$\chi^2=44,16632$	df=18	p<0,001				

### Ⅲ. 결 론

이 조사는 의료기관 내 물리치료실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물리치료실 자립개설에 대한 의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의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요약

- 1) 조사대상자들은 연령분포로 보면 20대가 60.4%였고, 여자가 56.3%로 남자보다 높았다. 경력별로는 5년미만이 56.1%였다.
- 2) 물리치료실 자립개설 제도의 법적화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75.3%였고, 자립개설을 위한 법적 가능 시기는 50.1%가 5 10년 이내에 가능하리라고 응답하였다.
- 3) 자립개설 추진에 있어 중요해결점은 실무경험 축적과 신기술 도입이 31.3%, 실무경험과 학력제고가 19.0%, 실무경험과 법적 대응이 14.0%였고, 기다리면 언젠가 된다고 10.9%였다.

#### 2. 결론 및 제언

- 1) 직장에서 물리치료 기술습득 기회제공의 정도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과학과 의료공학이 급속한 발달을 보이는 추세로 볼 때 물리치료의 독자적인 업무개발과 발전의욕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자립개설 제도의 법적화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개설가능 시에 개설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상응하는 물리치료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학제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하여 과감한 교과과정의 개정과 한국적 물리치료를 과학화하고, 대학에는 석·박사과정 개설을 장려해야 한다.
- 4) 자립개설 추진에 있어 중요해결점은 실무경험 축적과 학력제고, 신기술 도입으로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도록 깊이 있는 지식과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부여

되어야 하며 협회에서는 물리치료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김용천, 오경현, 황성수 등. 물리치료 연구동향과 미래연구.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1(2); 39-51, 1994.

김철용. 물리치료의 발전과제와 전망.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4(2); 101-106, 1997.

박원학, 박미정. 대구·경북지역의 취업 물리치료사 현황 조사.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1(2); 31-37, 1994.

박윤기, 박맹조.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지, 11(2), 1990.

박찬의. 서울시내 일부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효율성에 관한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박형준, 양임규. 물리치료원(가칭) 자립개설 추진방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자립개설 추진본부 대전지회, 1996.

백진. 대한 물리치료사 회원의 근황에 대한 고찰.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지, 1; 63-67, 1977.

성수원. 물리치료사의 직무태도와 영향요인과의 상관관계.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지, 8(1); 19-28, 1987.

어경홍, 이충휘.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도와 의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지, 7(2); 53-65, 1986.

오정희, 이기웅. 물리치료사의 작업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우석의대 잡지, 1; 33-42, 1970

이재학. 한국 물리치료사의 양성 및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이충휘.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2(1); 65-74, 1990.

이충휘, 주민, 김선엽. 안동지역의 외래 물리치료실 이용 환자의 만족도.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1(1); 73-82, 1989.

장문경. 양·한방 물리치료의 차이점 연구.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2(2); 105-112, 1995.

장수경. 물리치료과 직업윤리와 관계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3(1), 1991.

장수경. 물리치료 교육과정 분석에 의한 물리치료 교육

- 이원화의 문제점.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 3(3): 317-331, 1996.
- 장정훈, 장익선. 전북지역 물리치료의 현황 및 업무효율성 제고.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지, 9(1): 27-34, 1988.
- 전계균. 물리치료사의 근무 실태와 직무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구한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최덕호.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Herzberg FI, Ziegler. Personality Theori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6.
- Porter LW, Lawler EE.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 III, 1968